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압박에 게임사, 사행성 우려... 일제 거부

넥슨 發 게임규제 강화 예고

게임사 매출 76% 확률형게임 기반 웹젠 등 5곳 ‘확률 오포기’ 조사받아 위기극복 위해 ‘구독형’ 사업 제시

대법원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송에서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게임업계가 다시 한번 확률형아이템 규제의 늪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확률형아이템 내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산업법을 개정하고 나섰지만 사행성 논란 등의 이유로 게임사들은 일제히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씨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린 첫 사례로 현재 공정위 조사 받고 있는 타게임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PC·모바일 매출 약 20조원 중 76%에 해당하는 15조원은 확률형 아이템 기반 비즈니스 모델



넥슨 사옥 전경. /넥슨

(BM)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이 주 수익사업인 게임사들 입장에서 이번 판결이 달갑지만은 않다. 뿐만 아니라 확률형아이템을 놓고 사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시행된 ‘아이템 확률 정보 의무 공개법’을 포함한 게임산업법 개정안까지 발의되면서 규제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게임사들은 확률형 게임을 놓고 내부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행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거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넥슨은 지난 2일 박정훈 국민의힘의원실의 ‘확률형 아이템 과금액 현황’에 대한 질의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넷마블·엔씨소프트·카카오

게임즈 등 나머지 10대 게임사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과거 게임사들이 해당 규제를 피하고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 각사가 공정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불일치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기도 했다. 확률 오포기 관련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게임사로는 ▲크래프톤 ▲위메이드 ▲컴투스 ▲그라비티 ▲웹젠 등이 꼽힌다.

국내 게임사들은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방향을 틀며 새로운 수익모델을 제시하고 나섰다. 하지만 확률형아이템이 도박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게임시장의 발전과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과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을 통한 BM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이 게임산업 발전 위해 다양한 BM이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다만 대형 게임사들은 BM 전환을 위해 버틸 여력이 있었지만 중소형 게임사들은 그마저도 어려울 수 있어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지나친 반감을 지양하고 BM 전환을 위한 유예 기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K벤처 30년. 성장을 잇다, 미래를 빛다’

벤처기업협회, 30주년 기념 슬로건 선정

벤처기업협회가 벤처 30주년 기념 슬로건으로 ‘K벤처 30년. 성장을 잇다, 미래를 빛다’를 선정했다.

3일 벤처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공모전을 통해 벤처 30주년 기념 슬로건을 접수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총 1117건으로 벤처기업 및 유관기관 종사자(407건), 일반 시민(405건), 벤처기업에 관심 있는 학생(305건) 등이 참여했다.

제시가 많았던 단어로는 혁신, 도약, 성장, 글로벌(세계), 미래 등이다.

공모전 심사는 1차로 심사위원단이 후보작 3건을 선정했으며, 이후 온라인 공개투표를 통해 대상과 우수상을 확정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K벤처 30년. 성장을 잇다, 미래를 빛다.’는 지난 30년 성과의 기쁨을 넘어 성장을 이어가고,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해당 슬로건은 내년 전국 4만여 벤처기업과 벤처생태계 구성원이 사용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기보, 제1호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지정

벤처 성장촉진 지원사업 수행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1호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3일 기보에 따르면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다.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춘 기관·법인·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한다.

기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7월 시행됨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 중기부의 요건 심사절차를 거쳐 지난달 27일 최종 전문기관으로 결정됐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통해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보증 지원 473조원, 기술평가 86만건 등을 수행했다. 또 무형자산 평가시스템을 통해 100만건 이상의 기업 상담·현장실사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스케



부산광역시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본사.

일업을 위해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약 2만개의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우대보증 지원을 통해 약 1만개 벤처기업에 7조7000억원의 기술보증을 공급했다.

한편, 기보는 소셜벤처기업 판별과 육성을 위해 소셜벤처기업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소셜벤처기업에 전용 보증상품인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을 통해 다양한 우대사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8276억원의 우대보증을 통해 소셜벤처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승호 기자

메인비즈協, 중국 등 글로벌시장 개척 시동

정저우한·중 혁신기업 포럼 열고 ‘비즈니스 플랫폼’ 현판식 가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가 중국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 개척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중국 허난성 성도인 정저우시와 교류·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데 이어 내년 4월에는 중국 하이난에서 혁신기업 교류포럼을 여는 등 중국 전역으로 보폭을 넓혀가기로 하면서다.

올해 2월 7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명진 회장은 지난 10월 말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메인비즈 글로벌 위원회’와 ‘메인비즈 글로벌 어드바이저’를 구성해 회원사들의 글로벌 진출을 더욱 촉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베트남 등 아시아시장으로 경영혁신 기업들의 발걸음을 확대한다는 포석이다.

메인비즈협회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정저우에서 ‘한·중 혁신기업 교류포럼’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협회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 기업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락사무소격인 ‘한·중 비즈니스 플랫폼’을 꾸리고 현판식도 가졌다. 이에 따라 정저우항공항에는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저우항공항 사무소’를, 한국 메인비즈협회엔 ‘중국 허난성 정



메인비즈협회는 중국 정저우에서 ‘한·중 혁신기업 교류포럼’을 열고 연락사무소인 비즈니스 플랫폼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왼쪽 2번째)이 정저우항공항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

저우항공항 한국대표처’를 각각 열기로 했다. ‘정저우항공항’은 정저우공항을 관리하는 곳이다.

메인비즈협회 회원사들은 정저우 중원 의학과과학성 건물 13층에 위치한 협회 사무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김명진 회장은 포럼 개막식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이 상호간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공급망 구축과 더불어 양국의 산업과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포럼이 한·중 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포럼에는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 35개사와 중국기업 30개사, 정저우항공항경제특구 관계자 등 약 130여명이 참여했다.

협회는 이번 교류포럼을 통해 현지 기업과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의 분야에서 1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한·중 국제협력산업단지’ 현판식도 가졌다.

협회는 이런 성과를 발판삼아 내년 4월에는 중국 하이난 보아오러칭 국제의료관광특구에서 한·중 혁신기업 교류포럼도 추가로 개최하는 등 계속해서 중국 전역으로 교류포럼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 수요조사를 해보니 중국은 여전히 소비시장으로서 매력적인 곳으로, 진출 희망도가 가장 많았던 국가”라며 “현지로부터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 중국에 제품·서비스를 수출할 기업, OEM 수요 기업 등 니즈에 따라 중국과 다양한 협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금융권 모의해킹 훈련... 취약점 즉시 보완

금감원-금융보안원

화이트해커 통해 모의훈련 실시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국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화이트해커(착한 해커)’ 등을 통한 사이버 모의훈련을 올해 2차례 실시했다. 그 결과 일부 금융회사에서 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중요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미비점이 나타나 즉시 보완조치에 나섰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금보원은 금융회사의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 지난 2월과 10월 화이트해커를 통해 은행업권과 제2금융권 모의해킹 훈련을 각각 실시했다.

훈련은 일시·대상·방법을 비공개로 금융회사의 탐지·방어체계를 불시에 점검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상반기에는 전체 은행(19개) 중 6개 회사에 대한 훈련을 진행했고, 하반기엔 제2금융권 및 생성형 인공지능(AI) LLM(Large Language Model·생성형AI)의 거대언어 모델에 비정상 답변

을 유도하도록 조장하는 행위)을 대상 83개 중 총 12개 금융회사 등을 불시에 점검했다.

특히 하반기엔 망분리 로드맵의 일환으로 조만간 금융권이 도입하게 될 생성형AI와 관련해 어떠한 환경(비정상적 질문)에도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특성인 ‘강건성’을 점검해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도출 후 보완하도록 했다.

2차례 훈련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외부 사이버위협에 충분한 대응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는 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중요 취약점이 발견됐다.

이번 훈련을 통해 금융회사가 기존의 훈련 방식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경영진을 포함한 회사내 전반적인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